

< 말라위에서 온 선교편지 > 5-6월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계 상황과 여건속에서 말라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설탕파동과 함께 잠시 안정되어지는 가 싶던 오일파동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말라위 현지인 사이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겁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 말라위 현 상황



그래도 지금까지는 10년을 살아가면서 한번도 설탕파동이 없었는데 거의 6개월이 다 되도록 설탕한봉지를 쉽게 살수 없다 보니 나라 경제가 많이 피폐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감자농장에 강도가 들어와서 감자를 강탈당하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 두명이나 살해당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도 없이 그냥 일상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좌절을 느낍니다.

온 천지가 9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에만 관심을 두고 이러한 두려운 생활 안전대책 및 식량대책은 없고 오로지 현실에서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빨래비누 한 장에 75-90과차했던 것이 이제는 1000과차씩 합니다. 그리고 콩고기 한봉지도 150과차했던 것이 또한 1000과차나 받는다고 하니 현지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쯤되면 온나라와 민족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니다.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올 파장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여, 곤궁에 처해있는 이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 일백채 집짓기사역



어느덧 백 채 집 짓기 사역이 40채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 당초에 익산의 어느 할머니 권사님의 후원으로부터 현지인들의 집 짓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센터 옆마을인 차파타 빌리지에 10채 , 분다 마을에 20여채 그리고 분다 인근 및 리더들 고향마을에 10여채 등 40여채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단기선교로 왔던 임현수목사님 내외와 TMTC에서 몇 채를 후원해주셨고 캐나다의 모장로님 및 모권사님께서 종전에 사이클론 재난후원금(당시 5만가구 유실 및 300여명 사망) 중 잔여후원금으로 100채 집짓기 사역에 사용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집짓기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우기때 벼락이나 천둥으로 약 800여채가 무너져 내리고 홍수로 인해 많은 집들이 유실되어 좀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집을 지은 빌리지 에서는 지난 우기를 보내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져 가는 현실속에서 그래도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있다는 것이 현지인은 물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하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 유치원 사역



그동안 오랫동안 가꾸어 왔던 잔디밭 축구장과 운동장을 유치원 학생들과 Youth 들에게 오픈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마음이 설레 입니다. 항상 흙바닥에서만 놀다 보니 잔디밭이 익숙치 않지만 흙도 덜 묻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노는 유치원 학생들을 볼 때 비록 잔디밭 조성하느라고 고생은 했지만 참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다시 시작한 Youth Ministry 사역을 하면서 잔디축구를 하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축구를 좋아하지만 여건이 안되어서 잔디밭 조성이나 축구공등이 없어 마음대로 즐기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잔디밭을 조금만 확장 조성하면 Full Size 축구장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센터 공간은 유치원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인격과 신앙성장 및 성장 발육을 돕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샬롬

● 옥수수 구입



금년도 옥수수 고시가가 52,000과차가 넘어 가면서 모잠비크에서 수입해온 옥수수 80가마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옥수수가루인 우파가 20여가마(옥수수50여가마해당분)가 있어 총130여가마를 비축한 셈입니다. 이번에는 집 짓기 사역과 우물사역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던 어느 할머니권사님과 캐나다의 지인분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옥수수 가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100여가마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수수 수확철인데도 여기저기에서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굶주리고 있는 가정들에게 옥수수 가루 (우파)로 구제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수확기에 모잠비크에서 수입을 하지 않았는데 가격이 너무 오르다보니

이제는 불법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년 치솟는 옥수수 가격을 감당하기에 힘이 든 상황입니다.

항상 수확기에 헝거시즌의 옥수수를 구입해야 저렴하고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재봉학교 사역



오늘은 재봉학교를 다시 오픈하는 날입니다. 현지인 재봉선생님은 매일 늦고 걸핏하면 결석을 하여 지난 학기까지만 수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하지 못한 선생님이로 인해 학생들까지도 걸핏하면 지각이나 결석하는등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봉선생님을 구했더니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성실한 것 같습니다. 재봉교육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말라위 국가를 부른 뒤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기회에 무슬림 선생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 재봉틀도 고장이 났고 바늘도 다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항상 모든 기계는 수선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Maintenance Day를 정하여서 센터에 있는 모든 기계 및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듯이 기계도 항상 보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재봉학교를 통해 유치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초등학교 Uniform 과 스쿨백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는 어머니들이 조금이라도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좀더 열심히 배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CTS 방송촬영 및 방영

얼마전에 방영된 CTS 열방을 향하여 프로그램 촬영 및 방영은 한국의 어느 후원 교회 선교국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작가님의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방송국에서 직접 말라위까지 방문하지 않고 Self 촬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촬영매뉴얼만 20페이지 상당의 촬영대본에 수시로 요청하는 자료로 인해 늘 방송 출연하는 배우나 탤런트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국의 의도와 현지선교사와의 포커스가 다소 다르다는 것도 깨닫는 귀한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아직 방송국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은 없지만 저희가 기도제목으로 요청했던 옥수수 구매와 사륜구동 자동차 구입에 따른 재정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랑기 토니의 수술의 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그토록 귀한 설탕한봉지를 전교인에게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몇 개월전에 설탕과 콩고기 그리고 빨래비누한장 또한 우파 5KG씩을 거의 전교인들에게 갑자기 나눠 주었습니다.

소문나면 걸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아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항상 몇 개월분의 감바(국민과자)와 비누와 콩고기등을 준비해 놓습니다. 현 말라위 물가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구입하려면 품절되었거나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인가 돈만 모아 놓으면 무조건 생활필수 아이템을 넉넉하게 구입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에 그 어디를 가도 설탕한봉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암시장에서는 설탕 한봉지가 6000-7000과차씩 판매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곳 말라위 현지인들은 아침에 시마(우리들의 밥에 해당)는 못먹더라도 뜨거운 차를 매일 마시는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츄벤티나 고구마로 아침을 대신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설탕을 준다고 하니 처음에는 의아해 했습니다. 시장이나 마켓에서도 구할 수 없는 데 전교인에게 설탕 1kg와 콩고기 한봉지, 비누한장씩을 나눠 줄 때에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였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제목*****

1. 물가가 역대급으로 폭등하여 현지인들의 폭동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와 각 단체들이 지혜와 인내로 잘 극복하고 현지인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2. 지금 6월에 릴롱웨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Youth Ministry Camp를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명 장학금 지급계획)
3. 진행중인 새마을 운동사역 중 100채 집짓기 및 수리사역등 말라위 새마을운동 사역과 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 사륜구동 자동차 구입의 재정을 허락하셔서 운송과 옥수수구제를 할 수 있도록 빌리지에 갈 수 있는 손발이 되게 하옵소서
5.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위해 젊은 동역자 및 협력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유치원, 청소년 영어교사, 그리고 재봉틀과 각종 직업훈련에 필요한 장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6. 7월에 캐나다 파송교회에서 오는 단기선교팀을 주님께서 주관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1. 많은 분들이 본인의 후원구좌를 요청하여 부득불 게재합니다.

Keb하나은행 303-04-00004-887 예금주: GMP민경화

기업은행 IBK 630-011647-01-010 민경화

2. 2025년부터는 선교편지를 2개월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라위 민경화/홍희선교사드림